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달 초,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한 지인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돌아왔다고 했다. 서귀포 정방폭포 인근에 자리한 '왓종미술관'에서 주인공인 이왓종(73) 화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제주에 머물고 있는 이 화백은 제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담은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로 잘 알려진 한국 화단의 거장이다. 지난 2013년 작업실로 활용하던 주택을 철거한 후 조선 백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은 왓종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작품'이다. 작가가 직접 가꾼 꽃과 나무로 꾸민 정원, 자연을 화폭에 재현한 화사한 색감의 작품들은 전국의 미술 애호가들을 사로잡는다.

이왓종·김홍희를 만나다

이날 제주도에 들른 이들은 참으로 우연히 원로 화가를 만날 수 있었다 한다. 미술관 내들이에 나선 날, 마침 전시장에 있던 이 화백이 광주에서 온 방문객들을 3층 야외 공간으로 초대해, 자신이 제주에 등

광주 관광, 새판을 짜라

지를 틀게 된 사연과 작품 이야기를 한 시간 가량 들려준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한 지인은 "전시장에 걸린 작품 하나하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순간, 3년 전 부산 여행 중 '글 쓰는 사진작가' 김홍희(60) 씨를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평소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친구의 안내로 부산 송정해수욕장 근처의 작업실을 방문한 우리 일행은 '창작의 산실'을 엿본다는 생각에 내내 마음이 설렜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20여 평의 아담한 스튜디오에는 수십여 개의 카메라와 흑백사진, 대형 포스터, 수백여 권의 책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대형 스피커와 수많은 음반 및 CD였다. 사실 그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책 읽기나 음악 감상 또는 여행을 통해 작업의 영감을 얻는 아티스트다. 이날 그의 작업 공간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두 고두고 아쉬울 뻔했던 소중한 기회였다.

근래 미술관, 갤러리, 예술특구, 작가의 스튜디오, 생가 등을 관광 코스로 연계하는 '아트 투어리즘'(Art tourism·예술관광)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의 '아트올레', 부산의 '달맞이 갤러리투어', 뉴욕 맨해튼의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Museum mile festival), 베이징의 '다산즈 789 예술특구' 투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아트올레'는 제주 저지에 술인마들과 20여 개의 미술관을 묶어 수십 만 명의 '충성도 높은' 관광객을 유치

하고 있다.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 역시 뉴욕의 예술적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거리 축제다. 맨해튼 5번가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10여 개의 미술관과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도보 코스로 엮어 매년 100여만 명이 다녀간다.

아트 투어리즘이 미래다

이들 도시가 아트 투어리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잠재력이 큰 고부가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색다른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술을 콘셉트로 하는 관광 상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접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광주도 아트 투어리즘의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필두로 비엔날레, 대인 예술시장,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윤림동·중외공원 미술관 벨트, 라지던시 공간 등 예술적 자산들이 도시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술관광을 지역의 미래로 키우려는 광주시의 비전과 의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예술의거리 활성화 축제의 경우 예술의거리로 입주해 있는 작가 10여 명의 스튜디오와 인근의 비움박물관, 은암미술관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전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별만 다르지 않다. 일회성 이벤트 위주로 진행하다 보

니 축제가 끝나고 나면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공간'과 콘텐츠가 많지 않다.

그뿐인가. 외제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등 10여 개의 문화 공간들이 밀집해 있는 광주 윤림동 일대와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관이 있는 중외공원 미술관 벨트도 관광 코스로 연계하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미흡하다. 특히 2·3년 전부터 구도심 일대에 동자를 틀기 시작한 지역 작가들의 스튜디오, 그리고 양림동의 '호랑이사나무 창작소' 등 레지던시 공간들을 '상품화'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는 지난 2002년 이후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문화수도 조성에 쏟은 나머지 '문화관광'에는 다소 소홀했던 탓이 크다. 실제로 대인 예술시장, 예술의거리, 아트올레, 광주폴리 등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속속 등장했지만 이를 시민들의 일상과 관광객들의 '로망'으로 이어주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모름지기 문화 도시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예술적 자원을 관광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물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승지 위주의 구시대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감동과 체험을 찾는 미래 세대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힘들다. 따라서 이제 아시아의 문화 플랫폼 품어라 비엔날레 개최지의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관광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예술과 문화로 충만한 여정(旅程), 바로 아트 투어리즘이다.

/jhpark@kwangju.co.kr

社說

5·18 진상조사위 출범 또 지연대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세 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위원회 위원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그제 브리핑에서 "이권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회에 재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 자격 조건은 법조, 학계(교수), 법의학 전공, 역사 연구, 인권 활동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후보는 관련 경력이 없어 결정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당의 세월호 특조위원 추천 사례를 들며 이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는 한국당이 추천했을 때부터 5·18을 폄하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5·18단체 망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세 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위원회 위원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그제 브리핑에서 "이권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회에 재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5·18은 폭동' 등 소속 의원들의 모욕 행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과에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한국당은 조기에 위원들을 재추천해 국가 차원의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5·18역사 왜곡과 폄하를 막는 길이다. 행여 한국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정치권은 위원 과반으로라도 조사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로 일컫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린다. 앞으로 개막식까지는 150일, 다섯 달이 남았다. 하지만 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옛그제는 서울역 대합실에 이 시대를 마스코트인 '수리'와 '말이' 조형물 제작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홍보대사 박태환 선수가 나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분위기는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북한 참가를 공식 제안했다 한다. 북한의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이 이뤄지면 대회 흥행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광주시에 조직위도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성 시장은 "이번 수영대회는 광주에서 개최하지만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알리는 절호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회 성공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국민적 관심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의 참가는 대회의 흥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 '마린 보이' 박태환 선수의 출전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영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체육 행사이자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경기장과 선수촌 건립 등 막바지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

불로불사(不老不死)는 인간의 오랜 숙원이다. 이를 갈구한 대표적 인물인 진시황제는 동남동녀 삼천 명에게 영약을 구해오도록 했으나 실패했다. 현대에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과학자, 정치가, 종교인, 예술인 등이 있는데 이들을 '트랜스휴머니스트'라 부른다.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단어는 1957년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급세기 들어서는 인간의 감각, 지능, 수명 등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첨단 과학 기술 운동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목표는 기계와 인간의 융합을 통하여 극도의 효율성을 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진 사이borg, 즉 초인공지능의 기계 인간이 되는 것이다. 기억,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등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서 일어나는 의식, 감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화학 물질의 작용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은 코드와 정보 처리 기술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이borg는 600만 불 사나이, 로보캡 등의 공상 과학 영화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육체에 불만을 느끼고 과학 기술로 능력을 확장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다. 일반인들도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고, 부러진 뼈에 철심을 박고, 심장박동기를 사용하는 등, 엄밀하게 보면 인간과 기계 융합의 보편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트랜스휴머니즘을 유물론적 종교라고 보는 것은 궁극적 목표가 육체와 기계를 융합하여 무한한 지혜와 정보를 소유한 불사의 존재, 즉 영생을 꿈꾸며 전통적 종교의 영역을 넘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알코어 생명연장재단(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은 1972년에 미국 아리조나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00명을 웃도는 망자(亡者)들이 -196℃의 초저온 질소 탱크 속에 보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 개념으로는 법적 사망 신고를 받은 시인이지만 그곳에서는 '환자'라 부르며 전신 환자는 20만 달러, 뇌 환자는 8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언젠가 해동될 '그날'이 오면 뇌환자의 경우, 어떤 몸 위에 그 뇌가 얹혀져도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2016년 졸탄(Zoltan Istvan)은 전쟁과 핵에 쓰는 비용을 수명 연장하는 연구에 쓰겠다고 미국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 정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유전 공학, 나노 기술, 로봇 공학의 급진적 발전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이렇듯 미국, 영국, 소련 등 여러 나라에서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약성경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첫 사람 아담에 이어 하늘까지 닿을 바

벨탑을 쌓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실패한 노아의 후손 이야기가 나온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신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현대판 시도인 셈이다.

200년 전에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이 쓴 단편소설 '립 반 윈클'(Rip Van Winkle)이 생각난다. 립은 어느 날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사냥을 나섰다가 힘겹게 숲통을 지고 가는 한 노인을 만나서 노인 대신 숲통을 지고 산속 동굴까지 왔다. 한 무리의 노인들이 곁에서 몇 년 얻어 마시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사냥총은 녹슬었고 수영이 한 자나 자라 가슴을 덮었다. 마을로 내려온 그는 자신이 20여 년 전에 실종 처리되었고 아내의 진즉 죽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립의 인생 상당 기간 역시 실종되었고 그는 시집간 딸네 집에서 그럭저럭 살다 죽었다. 인간의 영혼을 배제하고 육체를 물질, 한물간 구시대 기계로 보는 트랜스휴머니스트 입장은 립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과학 기술이라는 최신 술은 영생을 갈망하는 이들을 취하게 하고 달콤한 헛꿈을 꾸게 한다.

기고

전남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



손병일
전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사회 복지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후 사회 보험 제도의 완비와 공공 부조 제도의 확충으로 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신중년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간 주도 지역 주민 참여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위험 요소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의 효과가 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서비스인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 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특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이다. 2018년도 전남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도서 노인 해피 라이프 서비스'와 '판소리 건강 100세 투입세' 등 33개 사업으로 도내 주민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율(87%)이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증가율(40.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발표한 '사회 서비스 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사회 서비스의 경우 부가 가치 효과 파급을 통한 경

기 부양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는 전남복지재단에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위탁하여 지원·관리토록 하고 있다. 도와 전남복지재단(전남지원단)은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제공인력 교육, 컨설팅, 홍보 박람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성과 평가 결과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의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사회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미래 10년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 노동부 보고서의 2014년도 대비 예상되는 2024년 고용 변화 직종에 '독거노인 건강 서비스'와 '지역 사회 서비스'가 상위 직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은 초고령화, 독거노

인, 지역 간 편차 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7년도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수급 실태 분석(전남지원단) 보고서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확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6%를 달하며 이용자들이 느끼는 제공자의 전문성에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남 사회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공급·이용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연적이다. 각 추진 체계별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올해 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전남지원단)은 지역 내 전달 체계를 보강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도서 지역 이용자 접근성 확대'와 '도서 지역 내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용자 또한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괴짜 행보로도 유명하다. 다섯 살 때 야구장에 버려진 빈병을 주운 뒤 이를 팔아 돈을 벌었을 정도로 경제관념이 남달랐다. 20대에는 조지 소로스와 글로벌 투자자인 퀴텀펀드를 설립해 10여 년간 누적 수익률 4200%를 올렸다. 하지만 그는 37세에 '나는 퀴텀펀드로 자유를 샀다'며 은퇴를 선언하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

짐 로저스는 세계의 기네스북 등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두 개가 세계 일주 투자하고 싶다는 이른 관련이다. 첫 번째는 오

짐 로저스

아가는 나라로 판단했다. 그는 이런 판단으로 아프리카 소국 보츠와나 주식 시장에 투자해 큰돈을 벌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보츠와나가 112개국 중 투자 적합도 1위에 올라 그의 혜안이 입증되었다.

그는 일찍이 투자자 중 가장 먼저 '21세기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에는 두 딸을 데리고 뉴욕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최근 북한의 변화를 지켜본 그

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이른 바 '대북 투자 대박론'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북한이 개방할 경우 한반도는 20년간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짐 로저스가 김정일의 초청으로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방북을 허가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그를 매개로 외국 자본 유치와 경제 개방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개방은 남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장필수 전남본부장·편집부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율 국 220-0515	문 화 부 220-066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FAX 222-8005)	문 화 부 220-0661	(FAX 222-0195)
정 처 부 220-0632	회 계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행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